

테마칼럼

예술로의 초대

이대성 20대창

김고은에 답하다

경제로 세상보기

새로움이라는 미션



이승우

시각의 새로움과 화법의 남다른 내용과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이 망각되어서는 안 된다. 예술은 기술이 아니기 때문이고, 새로운 것이 언제나 늘 무조건 좋지는 않기 때문이다

소설이라는 장르에서 중요한 것은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소설이 이야기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누가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 이야기의 내용이 달라진다. 말하는 사람의 욕망과 의도와 입장에 의해 해석되고 재구성되지 않은 사건이란 없다. 아니, 누군가의 입을 통해 전해질 때까지 사건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사건과 함께 그 사건을 옮기는 사람의 욕망과 의도도 함께 듣는다고 할 수 있다. 혹은 그 사건에 빚낸 누군가의 욕망이나 의도를 듣는다고 하는 편이 사실에 가까울지 모르겠다. 소설은 허구의 이야기지만, 그러나 누군가에 의해 말해진 이야기이다. 그러므로 소설을 쓰려고 할 때, 그러니까 허구의 이야기를 풀어놓으려고 할 때, 먼저 상징해야 하는 것은 누구의 입을 빌려 말할 것인가, 이다. 시각의 확보가 소설의 성격을 결정한다고 보아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요즘의 소설들, 특히 젊은 작가들에 의해 창작된 소설들에서 독특한 화법을 가진 개성 있는 화자들을 자주 만나게 된다. 현대 소설에서 화법의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게 사실이다. 그런데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조금 걱정스러운 면이 발견된다. 화법에 대한 관심은 개성을 추구해야 하는 예술가에게는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나 독특한 화법을 구사해야 한다는 압박에 이를 정도라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대개 화법

은 작가의 체질에 의해 좌우되거나 표현하려고 하는 내용에 의해 정해진다. 작가는 이야기를 효율적으로 전하기 위해 어떤 화법을 구사할 것인가를 고민한다. 그러나 그 고민은 대개 그 작가의 문학적 체질의 범주 안에서 해결된다. 그런데 내용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고 화법 자체만을 추구하거나 자신의 문학적 체질을 도외시한 채 일방적으로 특이한 스타일만을 고집하려고 할 때는 조금 난감해진다. 남다른 것에 대한 추구나 새로움에 대한 관심이 조금이나마 강박증으로까지 발전해 버린다면 곤란하지 않을까. 이해를 전하려 할 수 없는 건 아니다. 소설의 소재나 주제들은 한계가 있고, 그것들은 긴 시간 동안 너무 많은 작가들에 의해 되풀이 말해졌다. 같은 내용을 다시 말하기 위해서는 다르게 말할 수밖에 없다. 다르게 말하기 위해서 화법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이상하지 않다. 격려할 일이지 비난할 일이 결코 아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내용을 잘 전하기 위해서라는 전제 아래서만 다양한 화법의 추구가 정당화된다. 내용이나 주제 따위에는 관심없더라도 자랑스럽게 말하는 이들을 더러 보게 되는데, 나로서는 그 시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무엇을 쓸 것인가'가 언제나 '어떻게 쓸 것인가'에 우선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이런 현상의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새것을 좋은 것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비단

문학의 현장에서만 일어나는 아니지만, 만연해 있는 것 같다. 무엇이 좋은가, 왜 좋은가를 따지지 않고, 무엇이 새로운가, 얼마나 새로운가만을 따지고 그것을 가지고 가치를 정하는 무의식적 관행이 퍼져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이 작품이 좋은 것은 무언가 새로운 것이 있기 때문이고, 그 작품이 좋지 않은 것은 새로운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판단은 곤란하다. 물론 새로우면서 좋은 것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새롭게 좋아도 좋은 것이 있고, 새로워도 좋지 않은 것이 있다. 그것은 다른 기준이다. 잘 아는 것처럼 예술은 기술과는 도무지 같지 않아서 나중에 나온 것이 이전에 나온 것보다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앞에 나온 것의 빛 아래서라야 제대로 평가되는 것이 나중에 태어난 것의 운명인 경우가, 이 영역에서는 더 흔하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기도 하거나 좋은 것들은, 해 아래 이미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시각의 새로움과 화법의 남다른 언젠가 추구하고 장려할 일이지만 그 이유가 내용과 주제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이 망각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예술은 기술이 아니기 때문이고, 새로운 것이 언제나 늘 무조건 좋지는 않기 때문이다. <소설가-조진대 문예창작학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시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중고칼럼



백남선

늘 존경해 왔던 분이 소천하셨으로써 분향소가 마련된 병원의 영안실로 운장을 다녀왔다. 그런데 쉴 수 없을 만큼 놓여진 진해 조화들이 상가의 위세를 설명해 주는 듯했지만, 빈소에서 만난 이들의 손은 썰렁한 느낌이였다. 그 썰렁함에 유족을 대하기가 조금은 민망해졌다. 그날 오후에, 가깝게 지내던 지인의 딸이 순산을 하였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리고 평소에도 가깝게 지냈던 산모에 대한 정이 있어서 병원을 찾았다. 병실

이 한다는 의미이다. 이때, '더불어'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삶에 갈등이 일어나고 자신의 인생에 뼈가 거름이 일어나게 된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더불어'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자란다. 부모는 이를 가르켜 예의라 말하고, 교실에서는 일반상식이라 배워왔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있어서 '더불어'가 지켜지지 않아 인생을 고통스럽게 한다. 가깝게는 배우자와의 '더불어'를 받아들이지 않으니 하기 때문에 가정의 불화를 초래하고, 자

배려하는 사람, 배려하는 사회

에는 순산을 축하하기 위해서 찾아온 이들로 시끌시끌하였다. 늦은 밤에, 집으로 돌아오면서 뇌리에서 맴을 도는 주제가 있었다. 그것은 인생이라는 낱말이었다. 죽어서 우리의 곁을 떠난 사람, 태어나서 우리에게 게로 온 사람을 경험한 그날, 삶의 의미에 대하여 사색하게 되었다. 굳이 교실에서 배우지 않았더라도 인생은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지낸다. 자기를 기쁨으로 맞이해 주는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인생을 시작하고, 주변의 사람으로부터 전승을 받으면서 그동안에 살아왔던 인생을 떠난다. 우리는 결코 혼자 아니다. 그리고 혼자 살고 싶다 하여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고, 죽어서도 나의 남은 몸을 누군가가 수습해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산다는 것은 나를 다른 이들과 더불어 같

너와 '더불어'를 인정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를 문제아로 만들고, 탈선을 방조하게 된다. 그렇다면 사회에서는 어떠한가? 사회에서 보게 되는 갖가지의 갈등상황도 역시 원인은 남을 인정하기를 거절하는 데서 비롯된다. 내가 남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데, 나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가 또한 나를 인정하려 들겠는가? 여기에서 우리의 삶이 서글퍼진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1도만 바꿔서 바라본다면 삶을 아름답게 할 수 있다. 생각을 1도만 바꿔서 "어떻게 하면 남이 이로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남에게 해가 되지 않을까"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것이다. 한 사람이 생각의 1도만 바꾸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을 배려한다면 그 배려만큼의 아름다움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광주기독교교단협의회장>

'한-뉴질랜드 FTA' 국내 농가 보호 대책부터 세워야

얼마 전 정부가 뉴질랜드와의 FTA를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알려지지 않았던 뉴질랜드는 사슴이 우리보다 강국이고 가격도 훨씬 싸다. 만약 뉴질랜드와 FTA를 체결할 경우 우리나라 양축 농가들은 완전 싹대밭이 될지도 모른다. 양축 농가들은 오래전부터 중국산과 뉴질랜드산 사슴고기와 녹음 때문에 경영난이 심각하다. 이제 FTA까지 하면 농가들은 전부 폐농할 거라고들 한다. 상대가 안돼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사슴 농가에 관심이 있거나 지원을 해주는 것도 아니다. 이와중에 뉴질랜드 사슴고기와 녹음이 들어오면

한약재 시장은 뉴질랜드산 녹음 빨로 뒤덮이고 말 것이다. 국산과 수입품을 제대로 구별하고 단속해도 우리가 이길까말까 한데 국산으로 둔갑하는 수입품을 단속도 제대로 안 하니 뻔한 결과가 나올 뿐이다. 정부는 뉴질랜드와 FTA를 할 때 허더라도 국산녹음과 외국산을 구별할 방법을 만들고, 우리 토종 녹음의 우수성을 더 많이 홍보해주어야 하며, 단속인원도 늘려서 가짜 국산산을 철저히 막아야 할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국내농가 보호대책을 세우고 나서 FTA를 하기 바란다. <김성준·광주시 서구 회장동>

기고



유훈근

2010학년도 수능이 150일 남았다. 지난 6월 평가원 모의평가를 시작으로 수험생들의 수능을 향한 여정은 이제 카운트 다운에 들어갔다. 그만큼 수험생들의 긴장감과 압박감 또한 커질 것이다. 수능 150일을 남겨둔 시점에서 지난 6월 평가원 모의평가의 출제 경향 및 난이도 분석을 통한 각 영역별 학습법을 알아본다. 또한 올바른 생활 습관을 통한 수험생들의 긴장감과 압박감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학습법에 대해 알아보자.

사회 탐구 영역의 경우 고난도의 문제를 일부 배치하여 고득점자들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보인다. 특히 윤리, 법과 사회의 경우 난이도가 상승하여 이 과목 선택 수험생의 경우 학습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영국의 특성상 시사적인 문제가 다수 출제되어 수험생들의 시사성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기본 개념과 연관성을 파악하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단순 암기 지식이나 개념에 대한 이해를 통한 문제 해결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살펴보자.

수능 150일을 위하여

지난 6월 모의 평가에서 나타났듯이 올해 수능은 난이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언어 영역의 난이도가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학의 경우 잘 알려진 작가의 낯선 작품이 출제되었을 경우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문학 감상에 대한 개념 원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단순 암기 지식을 넘어서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는 사고력도 필요하다. 따라서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작가를 중심으로 꼼꼼히 학습하되 EBS 교재에 수록된 문학 작품에 대한 분석도 반드시 필요하다. 수리 영역의 경우도 6월 모의 평가의 난이도가 대폭 상승하였다. 이 기초는 수능에도 그대로 유지되리라 예상된다. 따라서 공식만을 단순 암기하는 수준을 넘어서 중요 단원의 핵심 개념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적용능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중학교 과정을 포함한 10~가·나의 기초학습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추론 능력을 묻는 문제들과 복잡한 상황의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어 영역의 경우 듣기, 독해 지문의 길이가 길어졌지만 문제 유형의 경우 전형적인 문제가 대부분 출제되었다. 따라서 듣기는 실제 수능처럼 일반스피커로 끝까지 듣는 집중력을 길러야 하고, 매일 3~4개씩 듣기 스크립트를 읽어 구어체 표현에도 익숙해지도록 한다. 독해는 어려운 문장의 해석 연습을 최대한 많이 하고 긴 문장 해석 능력을 기르기 위해 긴 문장을 노트에 적어 정확하게 해석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전체단락의 큰 흐름 속에서 문맥을 파악하는 능력 배양이 요구된다.

요구한 것이다. 평소의 학습법도 암기보다는 적용을 통한 사고력 배양이 필요하다. 과학 탐구 영역의 경우 교과서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 원리와 개념을 적용하는 문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히 많은 수험생이 선택한 생물의 난이도가 상승해 변별력 확보를 위한 노력의 흔적이 보인다. 그리고 기본 개념을 이용한 수학적 계산 능력을 필요로 하는 문제도 출제되었다. 생물을 선택한 수험생의 경우 단순 암기식 문제보다는 자료 분석을 통한 복잡한 사고를 요하는 문제가 전반적으로 많이 출제되어 개념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여 해결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공부 습관이다. 올바른 생활 습관이야말로 효율적인 공부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긴장감과 압박감을 해소할 수 있다. 먼저 규칙적인 생활이 필요하다. 잠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정해놓고, 반드시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수면시간을 너무 급격하게 줄이면 몸의 리듬이 깨지기 쉬우니 수험생들의 주의를 요한다. 또한, 주말을 이용한 정기적인 운동도 중요하다. 특별한 근력 운동보다는 유산소 운동을 통해 근육의 긴장을 이완하고 체력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험생의 마음가짐이다. 아직 수능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다. 시간에 쫓기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유를 잃으면 긴장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압박감도 높아지게 된다. 이는 수능 점수와 반비례한다. 여유는 수능 점수와 비례한다. 수험생들의 여유를 위하여 힘팅! <हे븐스티디기술학원 원장>

시설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손질 서둘러야

시장·군수나 시·군·구의원을 뽑는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폐지하는 목소리가 정치권 안팎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위한 사회원론회'에는 고건·이수성·이홍구 등 전직 총리 3명과 각계 원로 55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로 기초의원들이 중안정도에 예측되어 있다"며 "정당공천제 폐지는 지방자치와 지역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주장했다. 지난 3월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장과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등의 시민단체가 국민운동 전국본부'가 출범, 현재 1천만명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는 지난 2006년 자치단체장이나 기초의원의 수 준을 높인다는 명분 등으로 도입됐지만 이후 각종 부작용으로 폐지 논란이 일

고 있다. 정당 공천제로 인한 대표적인 폐해로는 공천 비리를 꼽을 수 있다. 공천을 받기 위해 중앙 정치인에게 거액의 공천자금을 제공했다가 적발된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예측화 논란 속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공천제 철폐를 주장하며 탈당하기도 했다. 여야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은 원로들과 시민단체들의 지적에 겸허히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정당 없이 대의제 민주주의가 올바르게 작동할 수 없고 정당공천제는 지방자치에서도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또 2003년 헌법재판소가 4대 지방선거 중 기초의회 의원선거 후보자에만 정당 표방을 금지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위헌결정을 내린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이제 정치권이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보다 큰 틀에서 지방자치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에 나설 때다.

학교장의 과도한 출장 해도 너무한다

전남지역 일부 학교장들이 한 해 100일 이상 출장을 명목으로 학교를 비운다고 한다. 교장의 출장일수가 연간 수업일수의 절반을 넘는 것 자체가 도저히 납득되지 않을뿐더러 그동안 장학지도가 얼마나 허술했으면 이런 몰상식한 일이 자행될 수 있는지 개탄스럽다. 전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나주, 영암, 완도 등 5개 지역 221개 초·중·고 학교장 출장일수가 70일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수업일수(220일)의 3분의 1을 출장으로 보낸 셈이다. 특히 출장일이 100일을 넘는 교장도 상당수에 달했다. 심지어 나주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무려 142일이나 났다니 할 말을 잃게 된다. 학교장의 과도한 출장비도 문제다. 일부 교장은 전 교직원 출장비의 30%를 가져가는 등 학교비용을 마치 자신의 호주머니 돈인 것처럼 사용했다. 이 때문에 일반 교사들이 연수나 출장 등에 필요한 여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어려구니 없는 일까지 발생했다. 이 같은 각종 학교 교장의 지나친 출장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교사와는 달리 교육청의 승인 절차가 없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말 그대로 출장은 '교장 맘'인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심지어 학교의 일부 교장은 주말 등을 타지에서 보내다 기상악화 등으로 귀교하지 못한 경우까지 출장처리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교장들의 과도한 잦은 출장은 교육당국의 책임이 크다. 불필요한 출장이나 부당한 출장비 수령 사례가 적발돼도 솥방망이 징계에 그쳐 오히려 이를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교장이 이들에 한번 꼴로 학교를 비운다면 학사 일정이나 교사 및 학생 관리가 제대로 되겠는가. 차제에 교장의 출장도 교육청의 승인제로 바꾸고 철저한 사후 확인을 통해 부당 행위가 드러나면 중징계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바야흐로 '어덜돌'의 시대다. 어른을 뜻하는 어덜트(adult)와 우상을 뜻하는 아이돌(idol)이 결합된 합성어로 20대부터 중년에 이르기까지 성인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스타를 말한다. 인듯 보면 아이돌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두터운 20, 30대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다는 점에서 과거의 아이돌과 다르다. 그 선두에 소녀시대가 있다. 중독성 강한 후크송 '지'를 내세워 위상반기 가요계를 평정하며 몇 남성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더니 일약 아저씨의 우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0대 청소년으로 가득 찼던 공연장이 어느새 30·40대의 아저씨들이 환연을 메우고 두터운 중저음으로 "소시짱"을 외친다. 한마디로 팬덤문화에 있어서 아저씨들의 반란이다. 아저씨 팬들이 소녀시대에 열광을 하는 것은 소녀의 파릇파릇한 순수함과 함께 언뜻언뜻 흘러나오는 섹시함이 가미된 야누스적 매력 때문이다. 특히 몸매가 작달라붙는 원색의 의상과 깜찍한 캐릭터는 로리타 콤플렉스를 자극한다. 남성

들의 로망을 자극하는 이 같은 콘셉트는 경제력을 갖춘 20~40대 남성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게 하기 충분하다. "지" 활동 이후 잠시 숨을 고르던 소녀시대가 여름을 맞아 최근 신곡 '소원을 말해봐'로 돌아왔다. '소원을 말해봐'는 기존 소녀시대의 깜찍 발랄함은 살짝 감추고 카리스마를 더한 노래다. 반복을 통해 중독성을 증시했던 '지'와는 달리 분위기와 흐름에 중점을 뒀다. 스피츠에 제기차기 춤으로 길고 얇은 다리를 강조한 것은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연상시킨다. 이들이 선보인 마린룩은 올 여름 유행 패션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소원을 말해봐' / 니마리에 있는 이상형을 그려봐/ 그리고 나를 봐/ 난 너의 지니야 꿈이 지니야.' 정말 말만하면 소원을 이뤄줄 것 같은 사이렌 요정들의 노래와 춤이 울림을 남겼을 때를 또 얼마나 열광하게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일환 여론조사부장 kih8@kwangju.co.kr

소녀시대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vertising rates.